

무주산 한우 등급 도내 최고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탄력

지난해 이어 고급육 생산 등급관정 도내 1위 예상... 1+등급 이상 출현율 60.6%

무주산 한우 등급이 도내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무주산 한우 등급관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축 출하된 한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이 60.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2년도에도 도내 1위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무주군은 예측하고 있다.



무주산 한우 등급이 도내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도축 출하된 한우 등급관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등급 이상이 56.1%로 나타나면서 전북도내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반딧불 한우 기반 조성을 통한 한우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한우 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역점을 뒀던 이 같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배넛소 등 8개 지원사업에 14억 원의 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산 한우가 대내·외에 고품질 평가를 받으면서 농가소득 향상과 한우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군은 종축개량 완성도가 높은 송아지 공급으로 밀소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 한우사육두수가 연말까지

354만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우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공수정 지원 등과 같은 사육두수 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완식 과장은 "한우 사육두수 과잉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인공수정지원 등과 같은 사업추진 중단을 권고하고 있어

관련 사업 축소가 불가피 하지만 한우 농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무주군의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각 지자체에서 생산·출하돼 도축된 한우에 대한 등급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023년 곤충유통사업지원 공모사업 선정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곤충유통사업지원' 공모사업에 남원시와 함께 공동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곤충자원 유통의 영세성 극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곤충유통사업단에 농가조직화·품질관리·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장수군 곤충유통사업단과 남원시의 협업을 도내 농업기술센터, 잠사곤충연구소 등과 함께 '백두대간 곤충유통사업단'을 구성해 10월 전국 지자체 공모에 신청했고, 18일 서류심사(1차), 31일 발표평가(2차)를 거쳐 전라북도 장수군·남원시 등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해당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총사업비 2억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곤충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더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을 통해 기존에 개발한 식용곤충 제품 등을 내세워 판촉행사와 박람회 및 홈쇼핑 방송에 참여해 평역·대량 홍보와 유통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곤충산업과 식용곤충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한편, 장수군의 곤충산업을 홍보하고 유통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2021 회계연도 재정분석 2년 연속 '우수'

무주군이 2022년(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계획성 부문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 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13개 지자체 중 재정 건전성(수지관리, 채무관리, 공기업관리)과 효율성(세입관리, 세출관리), 계획성(재정계획, 재정집행) 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했다.

무주군은 계획성 분야에서 5개 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효율성에서도 '나' 등급, 최종 종합등급에서는 '가' 등급을 받았다.

계획성 분야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 이월·불용액 비율을 보는 것으로 행안부에서는 집행 실적과 계획적 재정운용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측정·분석해 평가에 반영했다.

행안부 분석 결과, 무주군은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1.7%로 유사 지자체 평균(95.4%) 대비 100%에 근접했으며, 세수오차비율은 92.8%로 유사 지자체 평균(85.7%) 대비 7.1%p가 높게 나타났다. 이월·불용액은 4.5%로 유사 지자체 평균(5.0%) 대비 0.5%p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군청 이종현 기획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무주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반영해 재정운영이 더욱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사업 추진

무주군은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태양광 가로등 신규설치를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통행안전과 시야확보 및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은 태양광 LED 가로등 40본과 관내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반딧불 희망프로젝트' 기부금 지원(33가구) 등 총 3억 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사업은 밀알복지재단·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공동 추진하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방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친환경 태양광 안심가로등 설치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밝은 희망을 전하는 사업이다.

앞서 군은 밀알복지재단과 한수원으로부터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군은 적십자 서창마을에서 적십자회 전교차로 구간 40등의 태양광 가로등을 오는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10일 밀알복지재단·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남은 농약 수거사업 집중 전개

무주군은 2022년 하반기 마을별 남은 농약(병) 수거 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무분별하게 불법 투기되는 폐농약(병)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오염을 차단해 수질환경을 보전하는 취지에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무주군 6개 읍·면 전역에서 마을별로 남은 농약(병) 수거사업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수거는 강 살리기 추진단 무주군 네트워크 동참한다.

6개 읍·면에서 수거할 농약 예상 수거량은 총 3천여 kg로 마을별로 방문해 수거하게 된다. 대부분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미개봉·미사용 농약과 개봉 후 잔량이 남아 더 사용하지 않는 농약, 그리고 폐농약병에 대해 집중 수거에 나선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안병량 팀장은 "최근 폐농약과 농약병의 불법 투기로 인한 하천 생태계 오염이 우려된다"며 "농약 수거로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남은 농약(병) 수거처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1기 시작

진안군은 9일~22일까지 3회에 걸쳐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인 중소농업인 대상 가공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조직체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2022 홍삼축제 시식 부스 운영에서 평가 좋았던 농축액, 젤리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또한 나혜진 대표(식품환경연구원) 등 농산물 가공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가공창업절차, 최신 가공 트렌드 등 농업인이 가공 창업에 필요한 기초이론도 함께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가공 창업 아카데미를 알차게 구성해 농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수료생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육성해 소량 다품목 상품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균정소식지 완성도 높인다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 통신원 역량강화 워크숍 가져

매월 관내·외 1만여명의 독자와 만나고 있는 진안군 균정소식지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 통신원들이 9일 해남군 일원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소식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

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양기분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통신원 16명이 참석했다.

통신원들은 해남군청을 방문해 해남군 소식지 담당 부서의 간담회를 갖고, 타 사례를 들여보며 앞으로 호남

의 지붕 진안고원 균정소식지의 나아갈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어 해남군민신문 박성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주민을 위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글쓰기 강의를 하고, 별도 토의시간을 통해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 전달에 대해 논의했다.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은 행장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의 제작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첫 사례로 손꼽힌다. 주민통신원들이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게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획, 지면배정, 편집 등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주민이 주가 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양기분 편집위원장은 "행정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녹아든 생생한 동네소식을 소식지에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독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은 A4 사이즈 책자형으로 매월 11,000부씩 발행하고 있다. 구독은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홍보팀(063-430-2823)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매월 관내·외 1만여명의 독자와 만나고 있는 진안군 균정소식지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 통신원들이 9일 해남군 일원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